

고품격 경제정책 전문매거진

인터넷신문 [www.경영저널.com](http://www.경영저널.com)

통권 제33호 | 2012. 4

# 경영저널

하나되는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정론



**COVER STORY** / 김문오 달성군수

**Wonderful Dalseong** / 달성보강정보, 대구의새 랜드마크 자리매김

**포커스 리딩** / 브릭스경제 곳곳서 위험등

**Zoom-in** / 대구 최초 특1급 호텔 '호텔인터불고 대구'

**핫이슈 Dalseong** / 달성군, 살기좋은 명품(名品)도시 건설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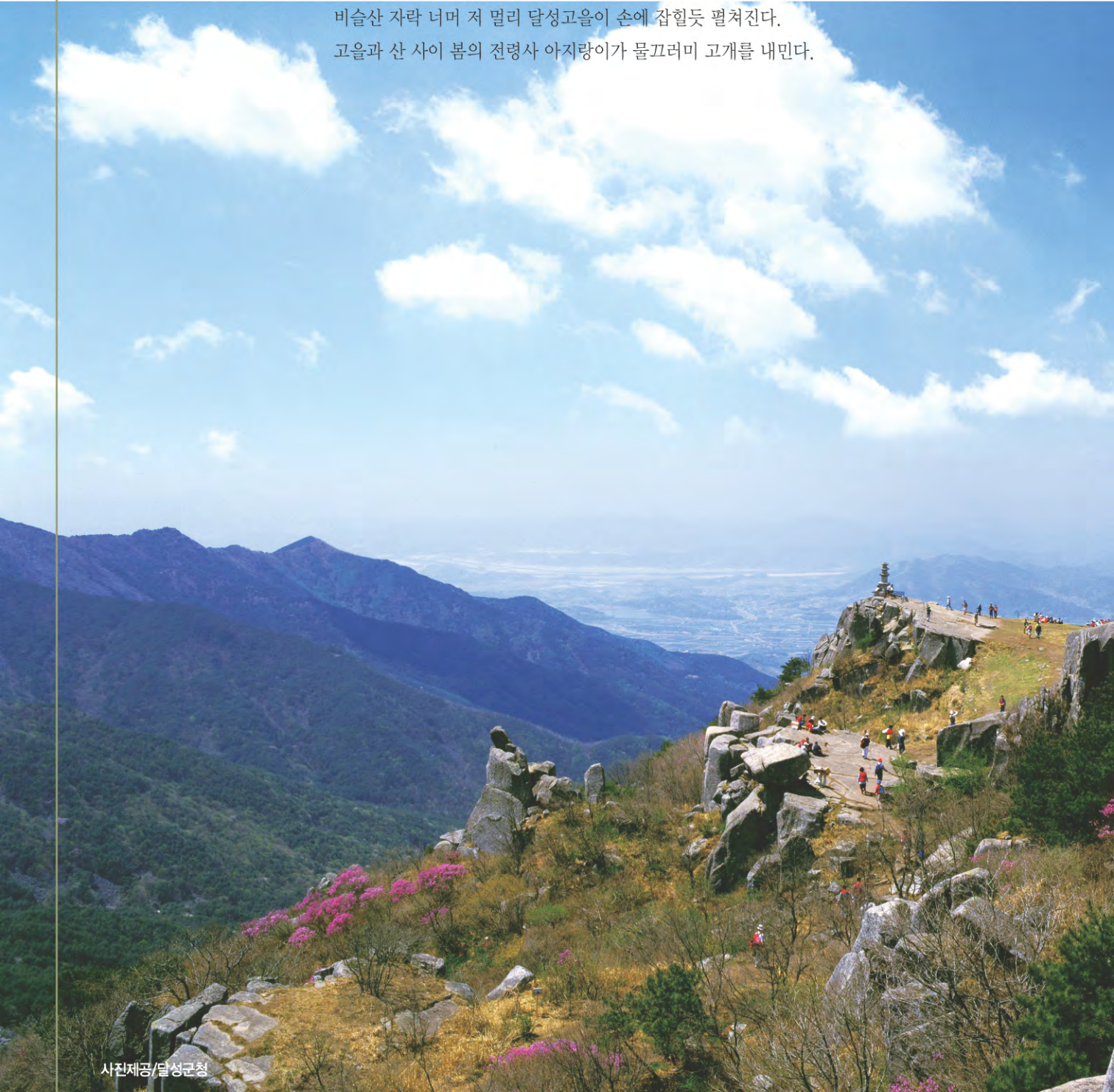
**정책의 허와 실** / 두산오거리 U턴구간 안전사고지대 전략

**지자체는지금** / 경북도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박차



## »» Photo Essay 비슬산 대견사지(大見寺址)

신라 고찰 터 대견사지에 새봄이 찾아왔다.  
초록빛 새싹이 싱그러움을 알리고 군데군데 핀 참꽃이 운치를 더한다.  
비슬산 자락 너머 저 멀리 달성고을이 손에 잡힐듯 펼쳐진다.  
고을과 산 사이 봄의 전령사 아지랑이가 물끄러미 고개를 내민다.



사진제공/달성군청

경영저널 [www.경영저널.com](http://www.경영저널.com) 통권 제33호

발행인·대표이사 이진구 | 편집인 서기대 | 등록번호 대구라07691 | 창간 2007년 11월 5일 | 편집위원 윤일형, 홍순대 | 전문기자 장승욱, 민경량, 이포상

편집 이한나 | 사진 김기환 |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TEL 053)766-1368 | FAX 053)766-1356

인쇄 삼영정밀인쇄사 | 가격 5,000원



# Contents

- 02 \_ Photo essay / 비슬산 대견사지(大見寺址)
- 04 \_ News wide / 행안부, 소상공인 대상 개인정보보호 백신 지원
- 06 \_ Economic trend / 대구·경북 대(對)중, 대(對) EU수출 증가세 큰폭 둔화
- 08 \_ Cover story / 김문오 달성군수
- 12 \_ Wonderful Dalseong / 달성보·강정보, 대구의 새 랜드마크 자리매김
- 14 \_ 축제의 고장 Dalseong / 비슬산 참꽃문화제
- 16 \_ Focus Reading / 브릭스경제 곳곳서 위험등
- 18 \_ 시장경제를 말한다 / '대형마트 강제휴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 20 \_ 칭찬합시다 / 권용대 안동시 주민복지과 상조시설 담당
- 21 \_ Zoom-in / 대구 최초 특급 호텔 '호텔인터볼고 대구'
- 22 \_ 핫이슈 Dalseong / 달성군, 살기좋은 명품(名品)도시 건설 박차
- 24 \_ 역사문화탐방 Dalseong / 용연사·녹동서원·도동서원 등 고찰·서원 관광객 발길 북적
- 26 \_ Dalseong 특산품 / 대구 유일의 전통주 하향주 명성자차
- 27 \_ Travel sketch / 남평문씨본리세거지(南平文氏本里世居地)
- 28 \_ 멤버십 회원사 줄인 / 대구 대표 궁중요리 전문점 '다우산방'
- 30 \_ 정책의 허와 실 / 두산오거리 U턴구간 안전사각지대 전략
- 32 \_ 금융&투자 /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
- 33 \_ 지자체는 지금 / 경북도 청년일자리 민간 창출 박차
- 34 \_ 오피니언&동정 / 경영저널 시민기자단 출범

##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48,000원  
 신청 방법 : 전화, 053) 766-1368  
 이메일, kepiglobal@kepi.or.kr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기관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기재)  
 입금 계좌 :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주)경영저널

## 〈독자 투고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706-842 경영저널 편집국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독자기고팀(kepiglobal@kepi.or.kr)



## 행안부, 소상공인 대상 개인정보보호 백신 지원

행정안전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유·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중개업, 비디오투어점, 소규모 피자가게 등 영세사업자의 경우 전문성 부족이나 비용 소요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운 점이 적잖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위해 백신 솔루션 4천개를 무상 지원하고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자는 의무조치사항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보안솔루션(접근통제, 암호화 등) 도입비용의 20%를 지원해줄기로 했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솔루션 도입 등의 직접적인 지원활동과 함께 상담을 통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취약분야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면세유 공급 농기계 확대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 화물자동차, 1t 미만의 농업용굴삭기, 사료배

합기 등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농기계의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농가에선 시중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농업 생산성 향상에 적잖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치로 현행 자체중량 2t 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의 경우 4t미만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농식품부 측은 전했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도 43개 기종으로 확대되면서 농가에선 연간 981억원 규모의 추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인들이 추가된 농업용 기계에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 농협에서 신고하면 한다.

## 환경부, 층간소음 분쟁 해결기구 운영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 국민의 65% 가량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층간소음관련 민원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341건을 기록,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는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된다.

경우에 따라선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도 진단받을 수 있다. 이 센터는 올해 수도권지역에서 시범사업에 나선 뒤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센터 설립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홍보 교육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이웃 간의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 일조권 규정이 현충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에 대한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는 내용의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천㎡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기준을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블록 단위의 노후 주택 정비를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권자는 대화가로(踏) 등 일정 도로 구간에 접한 필지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설정하고 건축물 등의 형태관리계획을 수립해 건축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는 맞벽 건축을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하는 등 좁은 땅에도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 시행일인 7월18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지경부, 7대 장비 90개 전략 품목 선정

지식경제부는 디스플레이·반도체·의료기기·방송·바이오

·LED·그린수송 등 신성장동력 장비 7대 분야에서 90개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향후 8년간 기술수준 및 개발시점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근간이 되는 장비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LED 등 7대 분야 90개 전략 품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선 LCD 시장 경쟁력 제고 및 급성장하는 OLED 양산을 위해 공정 단축이 가능한 원가 절감형 장비군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장비군에서 수요기업의 의견 및 전략적 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LCD·OLED 검사수리 통합장비 등 5개 품목을 선정했다. 반도체 장비 분야에선 800Mbps 고속 플래시메모리 테스터, Optical CD 측정장비 등 12개 제품을 전략 품목으로 확정했다.

시스템 반도체 설비투자 확대 등 고집적·고기능 칩 구현을 위한 회로 미세화, 신패키징 기술 수요에 대응한 제품군으로 해석된다. LED 장비 분야에선 LED 조명확산에 대응해 수요기업 연계가 가능한 고효율·고출력 생산 장비군 중심으로 전략 제품을 지정했다.

형광체 Conformal coating 장비, LED TCO용 고품위 증착장비, 열특성 평가 장비, 실시간 Epi Layer 평가 장비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의료장비 분야에선 수입의존도가 크고 제품 개발 시 신의료서비스 시장 창출이 가능한 초음파·유도 HIFU, 방사선 치료용 Couch 등 19개 품목을 선정했다.

바이오 장비에선 주요 핵심 부품을 선진국에 의존하는 바이오 스캐너, 전자현미경, 형광분석기 등 15개 품목을 확정했다.

이 밖에 그린수송 장비분야에서는 크루저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겨냥한 대형 부품 양산장비를 중심으로 19개 제품을 선정했고, 방송장비분야에서는 뉴미디어도입 등 포스트 HD 실감형 방송 장비군 위주로 전략품목을 확정지었다.

김학도 지경부 신산업정책국장은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사업 2년차를 맞아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 주체들과의 의견수렴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욱 전문기자

# 대구·경북 대(對)중, 대(對) EU수출 증가세 큰폭 둔화

대구·경북의 수출이 10년새 3배 가량 늘어났지만 세계 최대시장인 EU지역과 중국에서는 수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등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대구·경북지역의 수출구조와 시사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EU지역은 전 세계 수입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연 평균 20% 안팎의 수입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세계 최대 교역시장으로 평가된다. 대구·경북의 대(對)중, 대(對) EU수출 규모 증가세 등 수출구조를 살펴본다.

## 대(對)중, 대(對) EU수출 증가세 둔화

최근들어 대구·경북의 대(對)중, 대(對) EU수출 증가세는 큰 폭의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 대경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6~2011년) 대구·경북의 중국 수출은 연 평균 3.2% 신장하는데 그쳤다.

반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연 평균 39.8%의 신장세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0년대 전반기와 비교해 수출 증가폭이 10분 1 아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EU시장에서도 엇비슷한 흐름을 보여,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연 평균 26.6%씩 신장한데 반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7.8%씩 역신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과 일본지역은 수출 신장세가 한층 확연해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수출기업들의 대(對)미 수출은 2001~2005년까지 연 평균 6.3% 신장세에서 2006~2011년에는 12.4%까지 확대됐다. 이 기간 일본시장 수출 증가세도 5.9%에서 13.9%로 상승했다.

## 수출제품 지역별 희비 교차

다만 교역시장별 수출제품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우선 중국시장에서는 섬유제품을 제외한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금속제품에서 큰 폭의 둔화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금속제품의 경우 33.7%에서 2.1%로 떨어졌고, 전

자전기 역시 46.3%에서 8.0%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기계류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 연 평균 66.9%씩 증가 추세를 보이던 것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1.4%까지 추락했다. 이와 달리 섬유류는 이 기간 -3.3%에서 5.2%로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했다.

같은 기간 EU시장에서는 섬유류(-5.7%→-11.6%), 철강금속(3.9%→37.4%), 기계류(8.3%→25.9%)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지역의 최대 수출 품목인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연 평균 31.9%씩 증가 추세를 보이던 것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4.6% 역신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전자 제품 수출이 이 처럼 부진했던 것은 스마트폰 등 고가 무선통신기기 제품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미국시장과 달리 EU지역에서는 보급형 제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저가 단말기 위주로 수출이 이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미국시장에서는 철강금속(4.5%→14.7%)과 전자전기(5.2%→12.2%)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섬유류(3.8%→2.5%), 기계류(21.0%→15.3%)는 증가폭이 축소된 양상을 보였다.

일본시장에선 섬유류(-2.8%→9.2%)와 철강금속(9.5%→16.1%), 전자전기(2.5%→14.2%)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연해졌다.

한편 대구·경북의 수출은 지난 2000년 200억달러에도 못 미치던 것이 지난해엔 600억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10년 새 3배 가량 수출 규모가 확대된 셈이다. 지역의 GR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0년 33.6%에서 2010년엔 50.1%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은 대경본부 측은 설명했다.

### 선진국 위주로 의존도 심화

대구·경북의 수출은 그러나 선진국 중심의 의존도를 보여, 자칫 상대국의 경제여건이나 경기변동이 심화될 경우 고전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한은 대경본부 측은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중반이후 중국, 미국, EU, 일본 등 4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59.2%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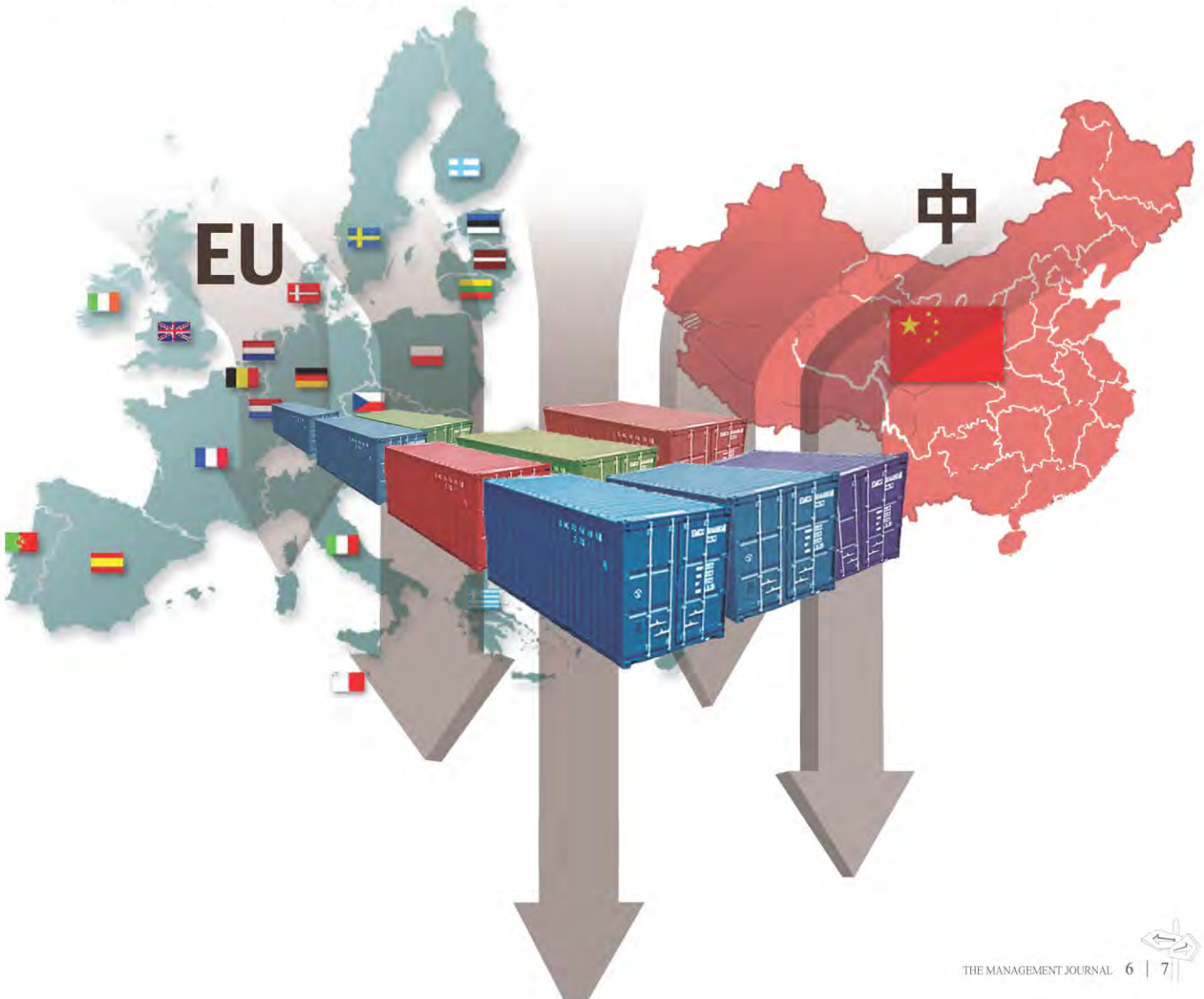
수출제품 또한 특정제품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개선점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고 한은 대경본부 측

은 조언했다.

이를 반영하듯 2011년 기준으로 지역의 10대 수출상품을 살펴보면 무선통신기기(21.2%), 철강판(16.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1.1%), 컴퓨터(5.0%),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특히 상위 10대 수출제품 가운데 전자전기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8.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은 대경본부 측은 덧붙였다.

한은 대경본부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한 바이오 산업단지, 에너지 클러스터 등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 바이오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수출 주도군으로 육성해야할 것”이라면서 “신흥시장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중저가 스마트폰 및 보급형 피쳐폰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휴대폰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수출시장을 신흥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출 주도산업을 서둘러 육성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포상 전문기자



# 김문오

달성군수

**출생** 1949년 대구 달성  
**학력** 대구 달성 회원초  
경북사대부고  
경북대 법학과 학사  
**경력** 대구 MBC 보도 경영 편성국장  
대구 MBC 미디컴 대표이사  
한국언론재단 기금이사  
대구 산악연맹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대구 축구협회 이사  
**수상** 제18회 대구시 문화상(언론부문)  
한국방송대상(지역언론부문)

달성군이 최근들어 대구 변방에서 대구의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경제를 먹여살려줄 첨단산업 중심축으로 떠오른 동시에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강정보와 달성보를 잇달아 개방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달성 발전'의 원동력으로는 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민선 5기 김문오 달성군수의 공로가 컸다. 달성이 고향인 김 군수의 지역 사랑은 너무나 각별해 보인다. 김 군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각종 지역 개발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면서 달성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다. 봄기운이 완연했던 지난 3월27일 달성군청에서 가진 본보와의 대담에서 김 군수는 "오는 2014년 개청 100년을 앞두고 군민들과 함께 하는 100년 달성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면서 "새로운 100년 달성의 바탕이 될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구경제 중심 첨단도시 달성 조성에 힘을 쏟을 터”

## 일문일답

**Q** 임진년 2012년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

**A** 2012년은 달성군의 꿈과 희망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올 한해 달성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명확하게 정립해 제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대구 경제발전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995년 대구로 편입된 이후 대구경제의 핵심으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구의 변방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신성장동력을 갖추는 것이 최대 관건으로 판단됩니다. 첨단산업과 연구교육의 중심지인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Q** 첨단 산업도시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선?

**A** 727만㎡ 규모로 오는 2015년 완공될 대구 테크노폴리스는 2010년 개원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을 중심으로 기반조성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위과정 설립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본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군정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달성군은 머잖은 장래에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지렛대 삼아 연구개발(R&D)과 산업·주거·문화기능이 한데 조화를 이룬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DGIST 중심의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완공시 고용 유발효과 8만명, 경제파급효과 3조4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물론 동남권 과학기술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은 아울러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과 성서5차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함으로써 산업화와 투자의 물꼬를 터나가고 있습니다. 공업용지난에 허덕이는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

롭게 그리고 있는 셈이죠.

현재 조성되고 있는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는 지역의 산업용지 부족난을 일거에 해소하고, 핵심 선도산업 육성을 통해 대구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북돋아주는 성장동력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대구지역 산업용지의 60% 이상을 달성군이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첨단 산업 중심축으로 달성군의 미래는 이 처럼 매우 밝습니다.

**Q** 녹색성장 중심도시 조성 방안은?

**A** 지금 우리사회 최고의 화두는 단연 녹색성장으로 압축됩니다. 이제 녹색성장은 한 지역의 경쟁력은 물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달성군 또한 이러한 흐름을 따라야 하고 또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달성' 구현에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수변 생태 공간 등을 조성해 녹색도시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마비정 로하스-테마마을 조성사업 역시 자연 친화형 대표적 모델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도 녹색성장의 기치아래 추진할 방침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 달성을 구현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달성보와 강정보 수면쓰레기 정화사업에 예산 6억원을 투입하고, 오수, 축산 폐수관리 등 수질오염관리 사업에도 총 6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지 평촌 소하천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를 강화하고 숲가꾸기 및 녹지대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사업에도 989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Q** 주민 삶의 질 향상위한 복지사업에 대해선?

**A** 군민 개개인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약



자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노후여가시설을 확충하는 등 어르신 복지에도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군민들의 삶에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등산로와 마을길 정비사업을 통해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복지행정을 펼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거듭강조하지만 나눔, 배려 문화가 지역 사회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복지정책에 내실을 더욱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 Q 교육사업에 힘 쏟고 있다면서요?

A 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이란 고사성이 있습니다. '십년 뒤를 내다보고 나무를 심고 백년 뒤를 내다보고 사람을 심는다'는 뜻으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표적 고사성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달성군이 앞으로 20만 군민 시대를 넘어 30만, 나아가 50만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교육의 힘'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인재를 위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 명품(名品)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복안입니다. 학생들이 떠나는 달성이 아니라 학생들이 찾아오는 달성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역점사업으로 그동안 초교 5학년생 1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4박5일 과정의 영어마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중학교 2학년생 2천여명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수 고교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고의 강사진을 꾸려,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 지원사업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격 실시된 주5일 수업에 맞춰 방과 후 학교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군립도서관을 상반기내에 착공하기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읍·면지역에 독서실을 겸한 작은 도서관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센터 운영,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등을 통해 미래 100년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Q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A 달성군이 진정한 일류도시의 면모를 갖추려면 100년 역사에 빛나는 문화를 알리고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책임질 달성문화재단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민의 문화시설의 중심축이 될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작정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달성문화센터에 대해선 지역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선보이는 등 운영의 미(美)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는 굴뚝없는 공장, 즉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 대접받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성군은 그래서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비슬산과 낙동강, 그리고 첨단과학도시를 연계한 명품(名品)

관광브랜드를 구축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은 이를 위해 달성지역을 관통하는 낙동강 일대에 레저·문화·스포츠 인프라 기반의 복합형 관광 허브를 구축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변을 활용한 낙동강 레포츠 벨리를 조성하고 대구학생수련원을 건립하는 등 레저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달성보와 강정보를 중심으로 스포츠, 위락, 편의시설을 조성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규환 감독의 영화 '임자 없는 나룻배'의 배경이 된 회원 사문진 나루터에다 사문진 영상파크를 조성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기로 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견사(大見寺) 중창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대견사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1천200년전에 일연선사께서 30여년간 머물며 삼국유사를 구상했던 사찰인데 중창사업이 마무리되면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연기념물인 암괴류 등 비슬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체계적으로 개발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 Q 개청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선?

A 달성군은 오는 2014년 3월1일 개청 100년을 앞두고 군민들과 함께 하는 100년 달성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100년은 한 세대가 바뀌는 세월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 100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이를 교훈삼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난날 대구의 뿌리이자 중심이었던 달성군의

정통성과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의 문화가치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00년 달성 꿈 프로젝트', '100년 달성 기념 숲 조성', '100년 달성 다큐멘터리 제작' 등 이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달성군의 위상과 격을 드높이겠습니다. 100년 달성 기념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Q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민선5기 출범이후 산하 모든 직원들은 소통의 행정으로 공급자가 아닌 군민중심의 수요자 입장에서 군정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아울러 올 한해 새로운 100년 달성의 바탕이 될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수혜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좋은 건축이 있고 튼튼한 뿌리 위에 좋은 꽃과 열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19만 군민과 700여 전 직원이 힘을 함께 모은다면 희망과 행복의 향기로 가득 찬 100년 달성을 활짝 꽃피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곁에서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진정한 일꾼, 그리고 군민들을 보듬고 섬기는 참된 군수(郡守)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담=서기대 국장  
정리=장승욱 전문기자



## 달성보·강정보, 대구의 새 랜드마크 자리매김

관광객 유치 등 달성군 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

대구 달성군이 희망의 낙동강시대를 힘차게 열어젖히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달성보와 강정보가 지난해 10월22일과 11월26일 각각 개방되면서 낙동강 수변공간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달성보와 강정보는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편집자 주〉

### 달성군, 낙동강 수변공간 개발 박차

달성군에 따르면 낙동강의 총 길이는 506km로 이 중 달성군 구간은 58km에 달한다. 이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긴 구간을 확보한 것이다. 대략 낙동강 전체 길이의 10분 1을 차지한 셈이다.

달성군은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살려 낙동강 수변공간을 레포츠벨리, 수상 레포츠시설, 청보리·유채꽃단지, 나루터 복원, 사문진 영상파크 조성, 수변골프장, 황포 돛배 운항 등 총 6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기로 했다. 그 중심엔 지난해 개방된 달성보와 강정보 등 두 개의 보가 있다.

### 달성보, 소수력발전 1천400여 가구 전력공급

달성보는 항해를 시작하는 크루즈를 형상화해 조성된 게 특징이다. 보의 길이는 580m로, 이 중 수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가동보 162m와 양단이 고정된 고정보 418m로 고안됐다.

높이 9.5m로 유량조절이 가능한 회전수문도 도입됐다. 달성보의 저수량은 5천600만에 이른다. 보 오른쪽 안쪽 편에 소수력발전기 3대가 설치돼 연간 1천400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달성군 측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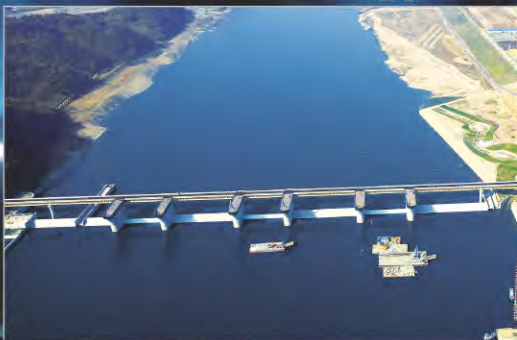
달성보의 가동보에는 원반부를 회전시켜 수문을 개폐하는 회전식 수문이 설치돼 있다. 평상시에는 수문을 바로 세워 강물



△강정보



△달성보 야경  
▽달성보



이 넘쳐흐르게 하고, 홍수시에는 아래쪽으로 내려 강물을 전량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눈길을 끈다.

보 상류에 퇴적물이 생기면 수문을 위로 들어 퇴적물을 배출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달성보에는 다양한 부수시설도 설치돼 있다. 하천 좌측에는 자연형 어도를, 또 우측에는 인공형 어도를 설치해 어류의 생태연결로를 확보하고 있는 동시에 어도 관찰실에서는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낙동강을 중심으로 자전거길, 습지공원, 생태공원, 천년별빛광장 등을 조성하고 보 옆에 설치된 달성나래센터 전

망대에서도 보와 강을 한눈에 엿볼 수 있도록 했다.

달성군은 나아가 도동나루터를 복원하고 수달 습지와 휴양형 슬로우 비치시설로 조성되는 현풍지구 등 총 6개 지구의 생태하천 조성 공사도 조만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지구마다 체육시설을 구축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 강정보, 4대강 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조성

강정보는 단연 규모면에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고정보 833.5m에 가동보 120m를 합쳐 최대 길이 953.5m로 조성된 점에서 그렇다. 전국에 걸쳐 조성된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길이 뿐만 아니라 규모면에서 가장 큰 것이다. 최대 저수량도 1억800만에 달한다.

충주댐과 청도 운문댐에 버금가는 저수량을 확보한 것이다. 폭 45m, 높이 11.6m의 수문 2개 역시 아시아지역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친환경 기반의 전력 생산시설에도 눈길이 쏠린다. 강정보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에서는 3천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다. 강정보는 아울러 주민과 관광객들이 건너자전거로 통행하며 풍경을 감상하도록 조성해 관광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보 한가운데에는 가야토기를 형상화한 탄주대를 설치했고, 톱나비 형상을 한 낙락섬(친수체험 공간)과 12계단, 12색의 조명으로 구성된 물풍금 등을 갖춰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야경 또한 매우 아름다워, 이를 보기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분주히 이어지고 있다. 4대강사업을 대표하는 물문화관도 오는 9월 강정보 도류제에 맞춰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물문화관은 총사업비 225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669㎡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물의 외양은 한국의 도자기, 물고기가 튀는 모양, 물수제비의 파장 등을 형상화한 게 특징이다.

물문화관이 준공되면 강정보는 낙동강 12경 중 하나인 달성습지와 함께 달성군 대표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벌써부터 관광객들이 크게 몰리고 있다.

달성군의 자체 조사 결과, 강정보를 개방한후 20여일만에 22만명의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에도 이어져, 주말마다 2천~3천명의 주민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달성군 측은 전했다. 달성군과 수자원공사는 강정보 방문객이 급증하자, 공중화장실과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낙동강변 관광 인프라를 시티투어 및 국내 관광코스와 연계해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경량 전문기자



# 비슬산

# 참꽃문화제

전국서 10만명 탐방  
대구·경북 대표 축제 도약



충효(忠孝)의 고장 달성군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명산(名山) 비슬산이 있다.

비슬산(毘瑟山)은 정상에 바위모양이 신선(神仙)이 거문고(거문고)를 타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해발 1천84m 높이의 비슬산은 빼어난 산세는 물론 울창한 산림과 기암괴석뿐만 아니라 유가사, 용연사 등 유명 사찰과 함께 자연휴양림, 대견사지 등 관광명소가 빼곡이 들어서 있다.

특히 4월 하순께 비슬산 대견사지 능선과 조화봉 정상에 오르면 100만㎡ 규모의 광활한 평원 전체가 온통 분홍빛 물결로 장관을 연출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참꽃군락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 참꽃군락지는 한마디로 비경(秘境) 그 자체다.

달성군은 이를 테마로 지난 1997년부터 매년 4~5월께 비슬산

참꽃문화제를 열고 있다. 이 축제는 봄철 대자연을 주제로 한 대구·경북지역 대표 축제로 명성이 자자하다.

축제기간동안 방문객들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볼거리가 매우 많아서다.

달성군이 주최하고 달성문화원이 주관하는 올해 비슬산 참꽃문화제는 오는 4월28일부터 5월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비슬산 참꽃군락지와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다.

달성군 측은 민속놀이마당, 참꽃시낭송회, 야생화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슬, 백년의 약속' 천년의 사랑 을 슬로건으로 한 비슬산 참꽃문화제는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

주요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살펴보면 축제 첫날인 4월28일에는





대북타악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식전행사와 개막축하 공연 등이 무대에 오르고, 4월29일에는 참꽃 음악회와 100년 달성 기념 문화공연 등이 펼쳐진다.

축제 기간동안 '달성품물한마당', '달성댄스한마당', '도전 참꽃 골든벨' 등도 관광객을 맞는다.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열린다. 4월28부터 5월6일까지 열리는 참꽃제 백일장을 필두로 문인협회 공연(4월28~5월6일), 참꽃시화전(4월28~5월6일), 대전사기와불사(4월28~5월6일) 등을 선보인다.

연계행사로는 4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군민운동장에서 참꽃 전국 족구대회를 개최하고, 5월6일엔 비슬산 휴양림 사무소에서 사찰음식 세미나 등을 갖는다.

달성군 관계자는 "비슬산의 유서깊은 문

화유산과 참꽃군락지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달성군의 대표 축제"라면서 "축제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 10만여명이 몰릴 정도로 큰 명성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슬산에는 겨울철이 되면 얼음을 테마로 한 축제도 펼쳐진다. 매년 1월 중순께 열리는 비슬산 얼음축제에서는 유독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얼음조각대회는 물론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얼음동굴관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획된 게 인기의 비결로 분석된다.

장승욱 전문기자



# 브릭스경제 곳곳서 위험등

물가불안·성장률 저하 '적신호'  
수출의존도 높은 우리경제에 치명타



성장률 저하, 물가불안 등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온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경제에 적신호가 잇따라 켜지고 있다. 선진국에 이어 브릭스마저 본격적인 경기 하강국면에 접어들 경우 마땅한 성장 동력이 없는 글로벌 경제는 지금보다 더욱 침체될 우려를 낳고 있다. 브릭스 경제 추락은 무엇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 브릭스 경제 잇따른 경고음

브릭스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최근들어 크게 나빠지고 있다. 남미의 맹주로 떠오른 브라질만 봐도 그렇다. 브라질은 지난 달 기준금리를 기존 10.5%에서 9.75%로 0.75% 포인트 내렸다. 브라질 기준 금리가 한 자릿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0년 4월(9.5%) 이후 2년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브라질의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고작 2.7%에 그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2010년 성장률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실물경제도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브라질의 올 1월 산업생산은 2.1% 감소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G2국인 중국경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경착륙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8%대로 밀려났고,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 역시 평년의 9~10%에 크게 못 미치는 7.5%까지 떨어질 것으로 중국 정부 측은 전망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무역수지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월 무역적자액만 312억달러를 기록, 1990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보였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53억5천만달러를 크게 상회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경제 또한 뚜렷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인도 경제계 안팎에서는 3월 말로 끝나는 2011~2012 회계연도의 성장률이 6.7%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전년의 8.8%에 비해 2%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은 물론 2008년(4.9%)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브릭스 4개국 가운데 그나마 러시아 경제만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 산유국으로 고유가 덕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은 대체로 악화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다. 이런 증후는 벌써부터 포착되고 있다. 작년 같은 달 대비 지난 1월 러시아의 성장률은 3.9%를 기록, 지난해 성장률 4.3%를 크게 밑돌았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예상 성장률을 3% 선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글로벌 경제 침체가 직접적 원인

브릭스의 성장엔진이 이 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꺼진 데는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게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의 경기 회복 또한 예상보다 더딘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브릭스 경제는 각 국가간 명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의 수출이 늘고 내수경기가 활기를 찾으면 자원강국인 러시아, 브라질 등에서 자원수출이 늘어나는 경제구조를 띠고 있다.

전 세계 원자재 블랙홀인 중국이 최근 EU국가와 미국시장에서 수출 증가폭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자원수입이 감소하자 이들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 브릭스 경제 침체 우리 경제에도 발목

브릭스 경제 추락은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5천565억달러로, 이 중 중국은 1천342억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출의 24.1%를 차지했다. 309억달러를 기록한 홍콩까지 합치면 범 중국시장 수출 비중은 29.6%까지 수직상승한다. 도이체뱅크 역시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인 G7국가의 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지면 중국은 0.2% 포인트 낮아지고, 한국은 이보다 훨씬 큰 1.1% 포인트나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계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수출 동조현상이 큰 산업구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96~2000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수출증가율간 상관계수는 0.55%에 그치던 것이 2006~2010년엔 0.8%로 높아졌다.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수출도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다.

## 경기부양책 악발 먹힐까

사정이 이러하자 브릭스 국가들 역시 경기부양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복합적인 악재가 한데 겹치면서 적절한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장 큰 문제로는 성장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브릭스 국가들의 후속 조치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겨우 금리 인하나 감세, 재정지출 확대 조치와 같은 부양카드에 그치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이 가장 손쉽게 꺼내드는 경기부양책으로는 금리 인하 조치가 꼽힌다. 브라질은 이미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물가불안이나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성장률 둔화 타결책으로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기에도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인하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및 자산버블 우려가 여전한 이유에서다. 다만 인도의 경우엔 금리인하 카드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물가불안을 기중시킬 여지가 높은 까닭에서다.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 2010년 3월 이후 금리를 13차례 인상해 현재 기준금리 8.5%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9%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손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포상 전문기자

# ‘대형마트 강제휴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지난 2월 기업형 마트의 영업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 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강제휴무제와 심야 영업금지 도입을 놓고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간의 논란이 일어났다.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표정이지만 대형마트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전주시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3월 11일 첫 휴무일을 맞았다. 하지만 정작 인근지역 상권의 반사이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양이다. 좀 더 지켜 봐야 알겠지만 과연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조치가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남는다.

이러한 조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소비자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기 싫어하고 상업시설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형마트 고객들의 대부분은 자가용을 이용하고 진열상품을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카트쇼핑에 익숙하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맞벌이 가정들은 야간쇼핑을 통해 생활의 윤택함을 누리기도 한다.

게다가 가족단위의 주말이용객들에게는 다양한 상업시설이 공존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쇼핑자원을 넘어 일종의 놀이공간으로도 인식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기대

하기 어렵다. 산지 직거래등을 통한 대형마트의 가격안정화 정책으로 재래시장의 장점인 가격차별성이 몇몇 품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다.

더욱이 가격정찰제에 익숙한 젊은 소비층들에게는 재래시장의 이용이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이 없다면 소비자는 등을 돌린다. 골목상권으로의 소비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전체 소비가 감소해 지역경제의 침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자전거를 잘 타는 아이만 질책하고 제한을 줄 것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에 능숙하지 못한 아이에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아이 스스로 자전거를 타 보려는 노력과 자생력 배양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경제 주체들간의 갈등해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포상 전문기자

# 대구·경북 대표 주류도매업체 (주)신화주류



**“최고 서비스 기반으로 고객업소 1천여곳 확보!  
월 매출만 15억원 상회!”**

대구·경북지역 주류도매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신화주류(대표 김만휘)의 성장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화주류는 고객 감동 및 차별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창사 10여년만에 연 매출 180억원 기업으로 성장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주류도매업체로 도약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대구·경북 대표 주류도매업체 (주)신화주류의 경영목표와 창업성공 스토리, 기업경쟁력을 진단한다.



## 대구·경북 대표 주류도매업체로 도약

경북 청도군 이서면에 위치한 신화주류는 자타가 인정하는 대구·경북 대표 주류도매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기업 외형만 살펴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주)신화주류는 지난해기준으로 월 매출 15억원 규모로 외형이 커졌다.

이는 매출 기준으로 대구권(영천, 경산 등 포함)의 종합주류도매업체 55곳 가운데 상위 1~2위권에 달하는 것이다. 창업초기 월 매출 2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10여년새 7.5배 가량 급신장한 셈이다.

창업 초기 5명으로 시작한 직원 수도 2월 현재 30명으로 확대됐다.

신화주류가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고객업소에 대한 차별화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소규모 주류 구매에도 먼 거리를 마다않고 배달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총 16대에 달하는 영업용 차량 운전석 원편에다 인사 잘하기, 항상 공손한 대답과 응대 등 주류 영업 및 배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매뉴얼 지침서인 이른바 '영업 10계명'을 붙여 직원들이 몸소 익히고 실천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신화주류의 자랑거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와인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영입해 판촉활동 및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지역 소믈리에(Sommelier)사이에서 최고의 와인전문가로 통하는 경북대 학사 출신의 김현수(35) 와인총괄부장이 그 주인공이다.

신화주류는 2월 현재 대구와 경산을 중심으로 1천여 업소를 고객사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단연 지역 최대 규모의 영업망을 확보한 것이다.

## 자수성가한 CEO의 표본

신화주류의 출발은 지난 200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입주류도매업체인 신화엔터프라이즈를 대구 수성구 상동에 설립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본격적 성장궤도에 진입한 것은 종합주류도매업체를 인수하면서부터다. 창업 1년만에 경북 청도에 위치한 종합주류도매업체인 화양상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성장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관련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경북 청송 출신인 김만휘(50) 신화주류 대표는 자수성가한 지역의 대표 CEO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81년 중앙상고(現 중앙고교)를 졸업한 그는 지역의 한 세무회계법인에 입사해 열과 성을 다해 일했고, 세무회계법인 대표 역시 그런 그를 높이 평가해 신망이 두터웠다고 한다. 김 대표는 이후 대구미래대학을 졸업한 후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하면서 얻은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보란 듯 창업성공신화를 일궈낸 것이다.

김 대표의 생활신조는 '내게 맞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 일에 충실하고 열중하자'다.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게 되고 만족을 얻지 못하는데, 이보다는 맡은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패속성장세를 보이던 신화주류도 위기는 있었다. <중략>

- 2012년 3월 '경영저널'에서



#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성공 모델 창출

**권용대**

안동시 주민복지과 상조시설 담당



최근 서울시가 시장상인들의 자생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둔 전통시장 활성화 마스터플랜수립에 전국상인연합회 등 관련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환경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듯이 몇 년 전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1990년대 이후 편하고 세련된 구매패턴을 선호하는 소비행태에 변화하지 못한 전통시장은 급속히 그 위상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며, 그 결과 지역 경제 붕괴라는 엄청난 쓰나미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잃은 것은 아니다. 2000년 이후 전통시장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으며 서서히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계획에 따른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도 생기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북북부 최대의 전통시장인 안동중앙신시장이다. 중앙신시장은 2002년부터 환경개선시설사업, 상인회 로고개발, 상인대학, 정보화 교육, 점포지도사업 등으로 고객과 가까이하고 있는 전통시장이다. 그 인지도가 경상북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모범사업으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는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사실 시장상인만큼 다양하고 개성이 뚜렷한 단체는 드물 것이다. 청계천복원사업 진행시 시장상인들을 수천번 만나 사업을 설득시킨 이명박대통령의 이야기가 새삼 생각나듯이 중앙신시장도 몇 년간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상인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만나 사업의 진정성을 발로 뛰면서 설득시키고 추진한 기

관이 있으니 안동시의 경제과학과이다. 굳이 칭찬하자면 실무를 맡은 권용대 담당이다. (현 안동시 주민복지과 상조시설 담당) 아마 안동시 공무원중에서 중앙신시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중에 한사람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많고 다양한 성향의 상인들이 안동시 계획을 무탈없이 진행하는데 협조했을까. 사업진행중에도 중앙신시장에서 국밥을 먹으면서 상인회원들과 이야기 나누던 모습은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성이 묻어 있었다. 확고한 신념으로 상인들과 소통한 결과인 셈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신시장 주차타워 및 연결육교 건립을 입안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신시장의 발전에 노력하는 진정한 우리지역의 일꾼임에 틀림없다.

물론 공무원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 직원이 한명만 있어도 신바람이 나서 흥으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지금 4월 선거로 정치가 한창 떠들썩하다. 모든 후보자가 제각기 공약을 내걸고 목숨바쳐 일하겠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허공속에 메아리처럼 공허한 공약인 것도 많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이 사회가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이유도 아마 우리에게는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평범한 공무원 덕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유명한 탤런트가 오락프로에 나와서 진정어린 마음으로 남에게 봉사하면서 자신은 행복으로 삶을 치유받았다는 고백은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듯이 더 살기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니 가슴이 뿌듯하다. 올 봄에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찬거리 하나 사는 것도 자녀들에게는 살아있는 체험교육이 될 것이다.



## 대구 최초 특1급 호텔 '호텔인터불고 대구'

지난 2001년 개관한 '호텔인터불고 대구'는 대구 최초의 특1급 호텔이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터불고그룹에서 호텔산업 불모지인 대구에다 최고급 시설의 특1급 호텔을 조성한 것은 창업주인 권영호 회장의 남다른 지역 사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도시에 최고급 호텔을 오픈하더라도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주위의 만류에도 아랑곳 없이 권 회장은 고향인 울진과 가까운 대구에다 특1급호텔을 개관하고 그룹차원의 호텔산업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권 회장의 지역사랑은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2008년에는 계명대학교에 200억원 상당의 땅을 기증한 것은 물론 울진 등지에서 장학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경산지역에 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장을 오픈한 것도 지역사랑의 일환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다. 스페인에 본사를 둔 인터불고그룹은 국내·외에 수산·냉장 및 관광산업과 함께 유통·조선·조정부문 등에 계열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한상(韓商)기업으로 통한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인재 육성 및 후진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호텔인터불고 대구의 사명인 '인터불고(INTER-BURGO)'는 스페인어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인터불고그룹 측은 '모두의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화목한 마을'이란 뜻을 지닌다고 했다.



이 사명에는 이와 함께 '뜻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사분란하게 힘을 합쳐 성실하게 생활한다'는 권 회장의 경영철학도 함께 담고 있다. 대구의 관문인 수성구 망우공원에 위치한 호텔인터불고 대구는 빼어난 조망권을 갖추는 등 우수한 주위 경관을 자랑한다. 청정한 대자연 속에 342개의 객실과 국제 수준의 컨벤션홀, 51스탑 크기의 최신형 파이프 오르간 등 최고 수준의 부대시설을 갖춘 것도 또 다른 자랑거리다.

다수의 국·내외 학회를 유지한 것은 물론 그간 대구에서 열린 국제행사 대부분을 치러 동종업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많은 VIP 귀빈들이 대구를 찾을 때 애용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호텔인터불고 대구 관계자는 "물한컵이라도 정성을 담아 올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시에 숙박고객들이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량 전문기자



# 달성군, 살기좋은 명품(名品) 도시 건설 박차

대구를 대표하는 첨단도시 달성군이 지역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발전의 중추 경제도시건설 △행복체험 복지구현 및 인재육성 여건 개선 △문화관광 명품 브랜드 구축 △100년 달성기념사업 준비 △친환경 녹색성장 거점 도시건설 등 5대 역점사업 추진을 통해서다. 이를 위해 달성군은 올해 예산을 당초보다 50억원 증액된 3천510억원(일반회계 3천404억원, 특별회계 106억원)으로 편성했다. 달성군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올해 역점 시책을 주요 사업별로 점검·분석한다.

## 대구발전위한 중추도시 건설 역점

달성군은 대구발전을 위한 중추도시 건설을 위해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도시 인프라 확충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국가산업단지·성서 5차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도시철도 1호선 연장,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조성사업 등 굵직한 대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도시기반 시설 구축사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교도소 이전사업 추진에 따라 후적지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선사HC-감문리간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주민 숙원사업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 및 교통안전개선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달성군은 또한 살기좋은 농촌 조성사업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친환경 원예단지 조성 등 친환경기반의 생산시설사업 육성사업에 14억원을 반영하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농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사업에 2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우 개량사업 등 축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억원을 지원하고 농업기반조성사업에도 63억원을 투입하기

로 했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고용시장 안정화사업에 예산 27억원을 편성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지역 경제개발사업에도 343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 친환경 녹색 거점도시 조성 박차

달성군은 친환경 기반의 녹색성장 조성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른바 '녹색 달성'을 구현하고 달성보·강정보 수면쓰레기 정화사업 및 우수·축산 폐수관리 등 수질오염관리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사·서재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환경·재난사업에 183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구지 평촌 소하천 등 하천정비와 하수도 관리사업에 100여억원을 투입하고,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자원화 사업에 30여억원을 반영하는 동시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및 사방담 조성 관리 등 친환경 관련 사업에도 98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복지도시 조성사업에도 매진

'복지 1번지' 달성을 만들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복지관 운영,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우 복지시설 운영에 8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생활형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사업에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달성군립 도서관을 조성하는데 12억원, 24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영어마을 체험 학습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교육의 내실도 다지기로 했다. 달성군은 올해 복지예산을 지난해보다 115억원 증액된 1천13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군(郡) 전체 예산의 32.2%를 차지하는 것이다.

###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총력

달성군은 이와 함께 문화·관광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사업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고부가가치 명품 문화·관광 브랜드 육성을 통해서다.

이를 위해 낙동강과 비슬산, 그리고 첨단과학도시를 연계한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는 동시에 일연스님이 초대주지로 삼국유사를 구상·집필한 곳으로 유명한 대견사 중창사업을 가시화하고 108km 길이의 비슬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로 했다. 초곡산성 공원화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달성군은 아울러 낙동강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수상 스포츠 거점화를 위한 낙동강 레포츠 밸리 조성사업 등이 꼽힌다. 화원 사문진 영상파크를 조성하고 낙동강 생태공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포스트(Post) 낙동강시대 선점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달성문화재단과 문화센터를 통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달성군은 특히 오는 2014년 개칭 100년을 앞두고 100주년 기념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100년 달성 기념숲을 조성하고 백대 명품시책 발굴,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군민들의 긍지를 높이고 달성군의 희망찬 100년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기존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승욱 전민기자



# 용연사·녹동서원·도동서원 등 고찰·서원 관광객 발길 복적

달성군에는 유서 깊은 고찰이 너무나 많다. 조선시대 대학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린 서원도 빼곡히 들어서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찾으면 좋을 달성군의 대표적 문화 유산을 소개한다.



## 녹동서원(鹿洞書院)

1789년 조선 정조 13년 지역 유림에서 유교적 문물과 예의를 중시한 김충선 장군의 뜻을 기려 건립한 서원이다. 김충선은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휘하의 우선봉장으로 참전했다가 조선에 귀순한 일본인 장군이다. 귀화후 조총제작 기술을 전수하고 경주, 울산 전투에서 공을 세워 조정으로부터 김충선이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받았다. 이후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 당시에도 큰 역할을 수행했고 노년에는 낙향해 향리교회에 힘썼다고 한다. 녹동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됐다가 1914년 재건됐다. 경내에는 강당, 녹동사, 향양문 등이 있다. 귀화한 김충선 장군을 모시는 서원이어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달성군 측은 전했다.

## 도동서원(道東書院)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서원이다. 김굉필 선생은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과 함께 조선 5현으로 불리는 조선 전기 대표 성리학자다. 1568년 지방유림에서 비슬산 동쪽 기슭에 세워 쌍계서원(雙溪書院)으로 명명되었고, 1573년에 같은 이름으로 사액됐다. 임진왜란때 소실됐다가 1605년 사림파에 의해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에 사우를 증건해 보로동서원(甫勞洞書院)으로 불렸다. 도동서원으로 사액된 것은 1607년부터다. 암키와와 수막새를 엇갈리게 끼워 장식한 토담은 강당, 사당과 함께 보물 제350호로 지정된 보기 드문 걸작으로, 우리 나라 재래토담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 서원은 지난 2007년 사적 제488호로 지정됐다.







### 용연사(龍淵寺) ▲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桐華寺) 말사인 용연사(龍淵寺)는 서기 912년 신라 신덕왕 1년에 창건된 유서깊은 고찰이다. 창건지는 보양(寶壤)국사로 전해지고 있다. 비슬산 북쪽 기슭인 옥포면 만송리 801번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진입로 입구에 조성된 벚꽃길이 유명하고 계곡 입구에 이르면 용연사의 명물인 '옥연지'도 볼 수 있다.

주요 문화재로는 보물 제539호인 석조계단과 경북도 문화재자료 제26호인 삼층석탑, 극락전, 부도군 등이 꼽힌다. 특히 용연사 적멸보궁 뒤뜰에 있는 석조계단에는 석가세존 진신사리가 봉안돼 있어 불교 신자들의 발길이 분주히 이어지고 있다. 이중기단 위에 석종형 탑신을 세우고 팔부신상, 사천왕상으로 조각한 이 석조계단은 석조예술품으로 가치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 육신사(六臣祠)

조선 제20대 재위 때 사육신으로 일컫는 박팽년(朴彭年), 성삼문(成三問), 하위지(河緯地), 이개(李愷), 유성원(柳成源), 유응부(兪應孚) 등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이다. 사우건물인 승정사에는 박팽년의 부친인 중림(仲林)의 위패도 함께 봉안돼 있으며, 정면 5칸, 측면 3칸에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지어져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경내에는 이와 별도로 정면 5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홀처마 팔작지붕인 승절당, 외삼문, 삼층각 등이 있고, 사당 앞에는 사육신의 행적을 기록한 육각기암비가 세워져 있다.

민경량 전문기자



# 하향주

신라고찰인 유가사(兪伽寺)에서 빚기 시작해 1천여년을 이어온 하향주는 맛과 향이 뛰어난 대구 유일의 전통 민속주다. 하향주는 유가참쌀을 주원료로 전통누룩에다 약쭉, 들국화, 인동초 등을 넣어 100일간 숙성·발효해 제조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대구국제모바일산업박람회(IMOBEX 2006) 공식 건배주로 지정된데 이어 그 해 열린 세계한상대회에서도 호평을 얻었다. 지난 2010년 국비 명품화사업에 지정돼 4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현대적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술은 지난 1680년 즈음부터 밀양 박씨(密陽朴氏) 집성촌인 달성군 유가면 음리의 박씨 종가집에서 빚어온 전통 가양주(家釀酒)로 알려져 있다. 술향이 은은하고 연꽃향이 난다고 해서 하향주로 불린다. 지난 1996년 대구시무형문화재 제11호에 지정됐다. '멋과 연꽃 향기가 어우러진 술'로, 이미 16세기 조선시대 때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것으로 문헌에는 전제되고 있다.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원료를 얻어 만들어 향과 맛이 빼어나고 토종 찹쌀을 이용해 전통방식 그대로 빚어 숙취와 두통도 완벽하게 없었다고 달성군 측은 전했다.



## 대구 유일의 전통주 하향주 명성 자자 유가참쌀도 '대한민국 1등' 품질 자랑

달성군이 자랑하는 대표 특산물로는 천년 역사의 명주(名酒) 하향주를 빼트릴 수 없다. 비슬산 맑은 물로 재배되고 있는 유가참쌀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전량 수매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는 유가참쌀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1등 찹쌀'로 인정받고 있다. (편집자주)

# 유가참쌀



달성을 대표하는 농산물은 유가참쌀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다. 신선찰벼 등 우수품종을 집단 재배 방식으로 생산해 찰기가 좋고 순도가 높아 유통시장에서 최고 품질의 찹쌀로 명성이 자자하다. 연간 생산량은 1천 규모를 자랑한다. 현재 달성군 유가면 일대 200여 농가에서 180ha 규모로 재배에 나서고 있다. 달성군에 따르면 유가참쌀은 비슬산의 맑은 물을 이용해 재배하고, 특히 타 품종 혼입 없이 전량 수매를 거쳐 저온 방식으로 저장해 색깔이 희고 윤기가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닌다. 찰기가 많아 떡을 만들었을 때 응고가 빨리되지 않고 식감이 뛰어난 것도 인기의 비결로 꼽힌다. 유가참쌀은 현재 1.2·4·10kg짜리로 시판되고 있으며 판매가격은 4천800원에서 3만8천200원까지 다양하다.

농협하나로클럽, 참달성농특산물쇼핑몰(<http://www.chamdalseung.com>) 등지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유가참쌀 명품화 사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1등 찹쌀'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차동소포장 시설 및 저온저장고를 갖춘 덕분에 우수 품질의 찹쌀을 가공해 연중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포상 전문기자

# Travel Sketch

추억이 머무르는 곳



## 남평문씨본리세거지(南平文氏本里世居地)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에 위치한 남평문씨 집성촌. 대구민속자료 제3호에 지정된 민속마을. 아홉 채의 한옥과 정자 두 채 등 총 11호 54동으로 조성돼 있는 남평문씨 본리세거지에는 수봉정사(壽峰精舍), 광거당(廣居堂), 인수문고(仁壽文庫) 등이 주목할 만한 건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자료출처 : 달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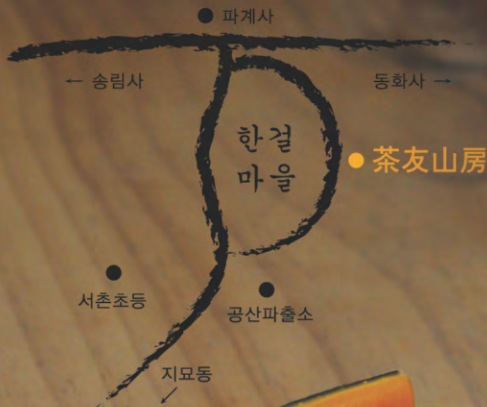
»» 멤버십 회원사 중인

난 오늘  
'왕' 이 된다

대구 대표 궁중요리 전문점

다우  
산방

# 茶友山房



**미** 식가들 사이에서 이름 높은 궁중요리 전문점이 있다. 파계로를 따라 공산파출소를 지나 팔공산 팔계삼거리에 약간 못 미쳐 국수촌으로 유명한 한결마을 중대동에 위치한 다우산방(茶友山房).

어느 정도로 음식맛이 뛰어날까. 한번 왔다 그 맛에 반해 죄다 단골손님이 될 정도로 소문난 맛집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맛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건강에 이로운 천연조미료와 일등급 식재료만을 엄선해 주인장의 손맛과 정성을 가득 담아 손님상을 차리는데 있다. 다우산방에선 간수와 불순물을 제거한 15년 이상된 천일염만을 엄선해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계절에 따라 오미자, 복분자, 오디, 모과, 산야초 등으로 만든 천연 효소로 음식맛을 내고 있다. 최소 1년 이상은 발효시킨 것이어서 몸에 매우 이롭다고 다우산방 측은 귀띔했다. 그래서일까. 이 효소로 만든 궁중요리는 하나같이 그 맛이 너무나 상큼하다. 화학조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아 뒷맛 또한 매우 깔끔하다. 손님들의 건강을 고려한 컬러푸드(Color Food)에도 맛의 비결은 숨어있다. 간에 좋은 '녹색',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적색', 비장을 다스리는 '황색', 폐 기능을 강화해주는 '백색', 신장을 보호해주는 '흑색'의 채소류와 과일, 산나물 등을 이용해 음식의 궁합을 맞추고 있다. 궁중음식 전문가들은 이를 오방색(五方色)의 조화를 이룬 요리라고 일컫는다. 주문을 하면 아재 샐러드, 무쌈 등 전채요리가 먼저 차려진다. 요리라기보다는 한 폭의 예술작품처럼 와 닿는다. 5~6월에 판 오디로 만든 천연효소로 상큼함을 강조했고, 치자와 백년초로 물들인 연근으로 조화를 이뤘다. 얇게 썬 무에다 유자청에 담긴 사과를 올린 무쌈도 그 고운 빛깔만큼이나 입 안 가득 새콤달콤한 맛을 자아낸다. 식욕을 돋을 때 안심맛춤인 것 같다. 전채요리 다음은 메인요리 차례다. 제대로된 궁중요리를 맛보면 감탄사가 저절로 터져 나온다. 닭가슴살과 인삼을 다져 동글게 만든 뒤 참살로 겉을 에워싸 겨자소스와 고추 고명으로 단장한 '진주공', 오미자 소스로 맛을 살린 '누룽지 탕수'를 먹자니 그 맛에 반해 젓가락이 멈출 새가 없다. 이어 나오는 요리 역시 군침이 자꾸자꾸 입 안 가득 맴돈다.

**가** 늘게 썬 파 위에 살포시 놓여진 가오리찜은 복분자효소와 맛이 어울려져 너무나 부드럽고 담백하다. 궁중떡볶이는 현미와 흑미로 만들어 웰빙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단호박의 달콤한 맛과 떡가래의 푹푹한 식감도 군침을 절로 돌게 한다. 대장군의 두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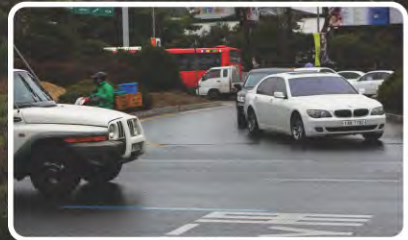
도 으깬 두부에 마늘과 파, 참기름으로 맛을 내 별미 중 별미로 손색없어 보인다. 깻잎이나 곰치, 케일에다 가축나물, 매실·감·사과장이 짜와 함께 싸먹는 돼지고기 수육도 꼭 맛봐야할 추천 메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년 이상 삭힌 과메기 장아찌, 그리고 오이, 무로 만든 장아찌는 '어떻게 이런 맛을 낼까' 그 맛에 반해 고개가 자꾸만 끄덕여진다. 화룡점정(畫龍點睛)은 연잎밥. 연잎 내음이 입 안 깊숙이 퍼져 은은함을 가득 녹여낸다. 은행과 강낭콩, 밤 등이 어우러져 영양밥으로도 제격이다. 이게 끝은 아니다. 디저트(Dessert)도 그 맛이 빼어나다. 한천과 오디, 백년초, 꿀을 이용해 만든 양갱과 발효효소 술잎·석류차가 대미(大尾)를 장식한다. 양갱은 너무 달지 않은 적당한 단 맛이 오묘한 맛을 자아내고 술잎차와 석류차 역시 신뜻하고 깔끔한 맛을 지녀 여운이 남는다. 다우산방은 애초 전통찻집으로 출발했다. 1995년 즈음이다. 그런데 손님들이 전통음식을 내놓으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아니겠느냐는 조언을 했고, 이를 받아들여 궁중요리를 선보였으며, 일품(一品) 궁중요리만을 엄선해 손님상을 차리고 있다는 입소문이 번지면서 전국에서 식도락가들이 몰려들고 있다.

**다** 우산방 권현숙(54) 대표는 음식의 맛은 정성이라고 강조한다. 철저히 수제(手製)만을 고집하다보니 하루 기준으로 점심시간 30인분, 저녁시간 30인분만 맛볼 수 있는 요리를 준비하고 있다. 궁중요리에 대한 그녀의 집념은 너무나 대단해 보인다. 궁중요리 대가인 윤숙자 문중의 일원으로 상경해 2년여간 공부를 한 그녀는 올 가을께 '동이전통음식 연구소'를 개원해 궁중요리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소개하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겠다는 게 작은 소망이다. 권현숙 대표는 "결혼 후 18년 동안을 조부모 등 4대와 함께 살면서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의를 몸소 익혔고, 손님을 대할 때 늘 이런 마음과 자세로 대하고 있다"면서 "제가 만든 궁중요리를 맛보고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손님들의 격려를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웃음꽃을 보였다.



◇ 권현숙 대표

서기대 편집국장



# 두산오거리 U턴구간 안전사각지대 전략

동대구로 두산오거리 부근의 U턴지역이 안전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두산오거리 동대구로는 왕복 8차선 도로이다. 두산오거리 부근의 이 U턴구간은 그러나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황금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 가운데 두산오거리 부근에서 U턴하는 차량 상당수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U턴시 앞에 놓여져 있는 조경수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운전자에게 상당한 지장을 받아서다. 두산오거리 일대는 특히 수성못에서 진입하는 직진차량을 비롯해 좌·우회전 차량이 몰리면서 U턴 시 자칫 대형 충돌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교차로보다 구간이 길어 신호에 쫓겨 과속운행을 하는 차량 때문에 위험천만한 U턴 지역이란 꼬리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두산오거리 일대에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공사로 인해 좁아진 차선 탓에 접촉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높은 형편이다. 건물들로 에워싸여있는 삭막한 도심의 미관을 고려하여 조경수를 심은 본래의 취지는 좋을 수는 있으나, 조경수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버려 문제시 되고 있다면 교통정책의 맹점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처럼 U턴 지점에 진입하

는 차량이 시야가 확보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안내 표지판 정도는 설치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위험표지판 미부착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단지 운전자의 과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 또한 이를 방치한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이다.

개선책이 없지 않는 게 아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버리는 벽과 같은 조경수들이 있는 위험천만한 두산오거리 U턴지점에 기존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 정리를 통하여 반대편 차량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신호등이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최소한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필자는 거듭 강조한다. 한번쯤 이 도로를 지나가본 운전자라면 필자의 이번 독자기고를 쓴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조경수가 도심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된 것은 좋으나, 이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고 위험을 느낀다면 관할 지자체는 이런 위험한 도로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필자뿐 아니라 이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한결 같은 바람임을 교통정책 당국자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현태진(대구시 남구 대명동)



# 노란우산공제가 300만 사장님들과 내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달인 김병만, 류담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가입시 혜택

- ☂ 납입부금에 **연복리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로 최고 115만원까지 절세가 됩니다.
- ☂ 납입부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 시에도 안전합니다.
- ☂ 상해 사고시 별도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입 안내

- 가입자격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 납입부금 월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담문의 콜센터(1666-9988), 홈페이지(www.8899.or.kr)

#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



**미**레는 불확실하므로 모든 사람들은 미래의 위험(risk)에 당면하게 된다. 미래 수익의 변동가능성을 의미하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투자의 성과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위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투자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의사결정을 내릴 때 항상 고민을 한다. 안전한 예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위험이 있더라도 주식을 선택할 것인가?

주식 중에서도 대형주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러한 투자결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투자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투자란 현재 확실한 희생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미래 더 큰 부를 얻고자 행위로 정의된다. 따라서 투자의 개념에는 현재와 미래간의 시차 즉, 화폐의 시간가치에 따르는 시간보상과 현재 희생은 확실한 반면 미래 부는 불확실하므로 위험보상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가 개별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시간보상과 위험보상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은 시간보상과 위험보상의 합이다.

## 투자안의 기대수익률=시간보상+위험보상

시간보상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로 일반적으로 무위험자산의 수익률로 간주한다.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인 시간보상은 모든 투자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험보상은 개별 투자자산의 위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로,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적금에 가입한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별 금융상품에 따라 기대수익률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위험보상 때문이다. 위험보상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미래 불확실성의 대가이다. 미래 불확실성이 클수록 투자자들은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기대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은 위험이 높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면 기대수익률이 낮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다. 즉, 위험이 높을수록 기대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낮을수록 기대수익률이 낮다. 이를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라 한다. 달리 표현하면, 투자자가 높은 기대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기대수익률에만 의존한 투자결정으로 큰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바람직한 투자의사결정은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투자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가?

어떤 자산의 수익률이 기대했던 수준인 평균에서 크게 벗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그 자산의 위험이 크다고 말한다. 개별 주식에 대한 위험은 일반적으로 분산 또는 표준편차로 측정된다. 표준편차는 평균(기대수익률)에서 얼마나 멀리 흩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숫자이다. 기대수익률이 같은 두 주식 중에서는 수익률 변동성이 작은 쪽이 당연히 투자 리스크도 작다.

금융시장은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한다.

그 수단 중 하나로 분산투자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위험은 주식시장 전반의 공통적 요인에 의해서 야기되는 체계적 위험과 개별 기업의 고유요인에 의해서 야기되는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된다.

## 총 위험=체계적 위험+비체계적 위험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 수를 증가시킬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점차 감소하여 총위험 또한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완전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 개별 기업의 고유요인은 서로 상쇄되어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면, 투자자는 체계적 위험만 부담하면서 시장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 경북도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박차



경북도가 올해 청년층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해 지역내 젊은층의 실업난 극복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청년층 취업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20~30대층의 인구 역외 유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청년층 일자리 1만개 창출을 골자로 하는 '청년희망일자리 뉴딜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예산 880억원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642억원)보다 37% 증액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경북지역의 청년층 실업률은 6.4%로, 전년 같은기간보다는 0.5% 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 2%에 비해선 3배 가량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청년층 취업난 극복을 위해 10대 시책에 걸쳐 총 55개 시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젊은층에서 선호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를 사상 최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채용인원을 지난해(904명)보다 16.8% 늘어난 1천56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의 질도 개선하기로 했는데, 행정인턴 등 공공부문의 한시적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9급 일반직 571명, 소방직 225명 등 신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 해외 취업 및 관련 봉사프로그램도 보강하기로 했다. 해외 청년인턴 및 새마을 해외봉사단 파견 등 지역 대학 중심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77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350여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고졸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 122억원을 반영해 일자리 930여개를 창출하는 한편 비정규직·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에도 4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140억원을 지원하고, 문화콘텐츠사업 강화 등을 통한 문화·스포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135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20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도는 또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예산 49억원을 확보하고 스마트매칭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청년층 일자리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지역대학과 특성화고, 기업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경량 전문기자

## 경영저널 시민기자단 출범

3월30일 본사 사옥서 '2012년 시민기자단 발대식' 개최

이진구 대표이사

# “지역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위한 주도층 돼 달라” 당부



대구·경북 대표 정론 경영저널(대표이사 이진구)이 시·도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의 생생한 생활정보를 전달해 줄 시민기자단을 출범했다.

경영저널은 지난 3월30일 오후 6시30분 대구 수성구 지산동 본사 사옥에서 이진구 대표이사를 비롯해 윤일형 편집위원, 서기대 편집국장, 시민기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시민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 위촉장 전달, 대표이사 훈시, 다과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진구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홍욱(단장)·이준형(기자)·도주희(기자)·정춘수(기자)·손지강(기자) 등 시민기자 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본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를 맞아 제도권 언론이 미치지 못하는 생활 주변 이야기 등 다양한 생활정보 및 사건, 사고에 대해 시민기자단이 취재한

우수한 기사와 칼럼을 지면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민기자단은 앞으로 1년간 시민 저널리즘시대에 맞춰 주민 밀착형 기사를 발굴하고 시민 눈높이의 뉴스거리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이웃, 우리 사회의 숨겨진 이야기 등을 현장의 느낌 그대로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부조리, 병폐 등을 밀착 취재해 지면에 반영하는 등 지역 사회의 여론 주도층으로 역할을 맡게 된다.

이진구 대표이사는 “시민기자 본연의 사명감을 갖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당당히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이번 시민기자단 출범을 통해 시·도민들에게 꿈과 소망을 전달하고 진솔한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편집국>

### ◇ 경영저널 시민기자단 ◇



홍 욱 단장



이준형 기자



도주희 기자



정춘수 기자



손지강 기자

# Korea Economic Planning Institute

www. **KEPI** .or.kr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연구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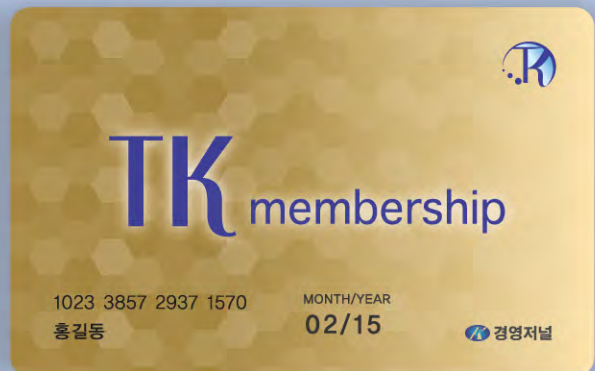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허가 학술연구기관  
공기업·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국가·지방계약법에 의한 원가계산·검토기관  
국토해양부 개발비용산정·검토기관  
농어촌공사 지역개발 컨설팅 등록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경제기획연구원**

# TK 경영저널이 membership card 를 발행합니다.



## 프리미엄 광고·홍보 혜택

- ✓ 경영저널은 TK멤버십카드 제휴가맹업체에 대해 온·오프라인(지면, 홈페이지)을 통한 쌍방향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경영저널은 제휴가맹업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맞춤형 광고 게재 등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 경영저널은 제휴가맹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제휴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